

박지성만 웃었다

정규·챔스리그·FA컵 등 팀 주전 맹활약

김두현·조원희, 부진·부상 올 시즌 마감

독일 이영표도 험난한 주전 경쟁 시달려

■ 유럽 해외파 4인 결산

'박지성만 웃고 나머지는 웃었다.'

주말 맘마다 국내 축구 팬들의 잠을 설치며 한 유럽 해외파들의 2008-2009 시즌 개인별 활약은 크게 대조를 이뤘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은 주전으로 입지를 굳게 지키며 최고의 시즌을 맞았지만 김두현(27·웨스트브롬)과 조원희(26·위건 애슬레틱)는 부진과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또 복귀 무대에서 활동하는 '베테랑 수비수' 이영표(32·도르트문트)도 협난한 주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박지성=프리미어리그 데뷔 이후 올 시즌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다. 또 갈수록 공수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무를 부상에서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이다.

맨유와 재계약 전망도 매우 밝다.

맨유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영국 언론은 박지성이 주급 5만 파운드(약 9천600만 원)를 받고 맨유에 4년 더 남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지성은 맨유와 2009-2010 시즌까지 계약한 상태다.

맨유가 박지성을 잡고 싶을 정도로 이번 시즌 박지성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을 시즌 정규리그 팀의 38경기 중 25경기에 출전했고 이 가운데 21경기는 선발이었다. 특히 풀타임 활약은 10차례나 됐다. 나머지 선발 11경기에서도 모두 후반에 교체될 만큼 강철 체력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박지성이 선발 출전한 21경기에서 맨유가 거둔 성적은 14승4무3패. 지난 시즌의 '박지성 선발=팀 승리' 공식은 깨졌다. 다만 박지성은 팀의 활력소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얻은 박지성의 공격포인트는 2골 2도움.

▲김두현=아쉬움이 끊기지 않는 시즌이다. 김두현은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도 밀려 2군에서 뛰거나 벤치를 자주 지켰고 국가대표팀에도 잇따라 발탁되지 못했다.

소속 팀 웨스트브롬도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에 머물며 승격 한 시즌만에 다시 웹파인십(2부리그)으로 강등됐다.

▲조원희=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조원희는 지난 16일 스포크시티와 37라운드 원정경기 때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14분까지 59분을 뛰며 한국인 선수로는 6번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선수가 됐다.

조원희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차례 선발 출전하고 두 차례는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에 나서지는 못했다.

이영표는 지난 4월 복귀와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활동 인대 부상으로 결장 기간이 한 달을 넘기도 하면서 데레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영표='베테랑 수비수' 이영표도



독일 분데스리가로 끌긴 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영표는 올 시즌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선발 21경기, 교체 1경기 등 18경기에 출전해 득점 없이 어시스트 1개를 올렸다. 도르트문트도 전날 이영표가 결장한 가운데 펜싱글리드바흐와 1-1로 비겨 6위로 밀리면서 유로파리그(전 UEFA컵)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영표가 2경기에 나선 이번 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컵에서도 소속 팀은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다.

조원희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차례 선발 출전하고 두 차례는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라운드에 나서지는 못했다.

이영표는 지난 4월 복귀와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활동 인대 부상으로 결장 기간이 한 달을 넘기도 하면서 데레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손태진 발차기 공격

2009 태권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가 25일 전북 김제시 실내체육관에서 개막됐다. 남자 -68kg에 서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태진(왼쪽)이 김용현에게 발차기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손태진은 경기에서 졌다.

/연합뉴스

순천여고, 양궁 단체전 한국신 명중

여고부 결승, 대구체고 230-215 꺾어

대통령기 양궁…순천대, 여대부 우승

순천여고 양궁팀이 여고부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순천여고는 25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막을 내린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대구체고를 230-215로 가볍게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순천여고가 기록한 230점은 지난 2006년 황당기 시도대회에서 인천선발이 기록한 228점 보다 2점이 더 높은 한국신기록이다.

여자대학부에서는 순천대가 223점을 쏴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한국체대(219점)를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광주시청이 전국 최강 전북도청을 맞아 접전을 펼친 끝에 221-222, 1점차로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강선영은 올림픽라운드 방식으로 열린 개인결승에서 107점을 쏴, 한인숙(예천군청·105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또한 강선영은 30m 경기에서 355점으로 동메달에 그쳤다.

허윤정은 30m 경기에서 356점으로 오선옥(흥성군청)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시청은 이번 대회에서 금 2, 은 1, 동 2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서승일기자 swseo@

한국 유도, 일본 메쳤다

김수완 2관왕 등 아유도선수권 금 6개로 종합우승

한국이 2009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24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금메달 3개를 보태 모두 금메달 6개로 3개 체급에서 우승한 일본을 제치고 종

합 1위에 올랐다.

전날 남자 10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수완(용인대)이 무제한급 결승에서 다시 차이마 히로카(일본)를 하리후리기 절반으로 꺾여 2관왕을 차지했고 남자 73kg급 방귀

만(상무)도 애다브(인도)를 밟아리후리기 한판으로 제압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자 48kg급 정정연(용인대)도 이베 쇼코(일본)를 엄마치기 한판으로 제압해 금메달을 보탰다.

남자 66kg급 안정환(포항시청)과 여자 무제한급 김나영(용인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어 중국, 카자흐스탄, 몽골이 금메달 2개씩 가져갔고 북한은 여자 57kg급 임연희가 금메달을 따냈다. 김수완은 남자부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한국은 2006년 황당기 시도대회에서 인천선발이 기록한 228점 보다 2점이 더 높은 한국신기록이다.

/연합뉴스

박태환 1,500m 2위…세계선수권 청신호

자넷 에반스 수영대회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대회의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자신의 최고 기록에 2초 가량 뒤진 좋은 성적을 내 세계선수권대회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박태환은 2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월리엄 유틴에서 200m 및 1,500m 준우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에반스 인비테이션(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4분57초6으로 레이스를 마쳐 2위에 올랐다.

우승은 14분55초43으로 박태환보다 1.63초 앞서 타치페드를 찐은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우사마 멜루리(튀니지)가 가져갔다. 박태환은 자유형 200m 우승과 400m 및 1,500m 준우승으로 이번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26일(화)

▲NBA 서부 컨퍼런스 결승 4차전 <덴버 LA레이커스>(10:00-MBCESPN)

▲문경 단오장자씨를 대회 거상장사(13:50-KBSN SPORTS)

▲프로야구 <LG : 롯데>(18:00-SBS스포츠), <하이로즈 : 두산>(18:10-KBSN SPORTS), <삼성 : 한화>(18:16-Xports), <기아 : SK>(21:00-MBCESPN)

▲청룡기 고교야구 결승전 (18:30-MBCESPN)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 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 010-3565-2888

* 위치 :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화방

아파트(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정가	최저가	비고
서구	종암동 글로벌타운	38	20/20	1억6000만 원	1억1200만 원	
	금호동 글로벌타운	36	18/18	1억8000만 원	1억3300만 원	
	금호동 라이온파크	37	17/8	1억2000만 원	8400만 원	
	마곡동 회民가	32	15/8	1억9000만 원	1억3300만 원	
	종암동 흰대실습장	49	16/1	1억8000만 원	1억2600만 원	
	화정동 블루밸리	47	10/1	1억6500만 원	1억1500만 원	
	생활동 그린밸리	33	17/15	9000만 원	6300만 원	
	화정동 e편한세상	55	22/22	4억 원	2억6000만 원	
	금호동 풍미동부문자	32	20/1	1억2000만 원	8400만 원	
	화정동 풍미동부문자	27	15/5	6000만 원	4200만 원	
	화정동 풍미동부문자	32	20/8	1억2800만 원	8900만 원	
	운현동 두동파워코스	32	20/7	9500만 원	6850만 원	
	산수동 청평동부문자	50	15/12	1억6500만 원	1억1600만 원	
	동원동 푸르미아파트	32	18/7	8000만 원	5600만 원	
	동원동 푸르미아파트	32	20/6	1억1000만 원	7700만 원	
	운현동 운현동부문자	27	5/3	4300만 원	3000만 원	
	운현동 운현동부문자	24	20/15	6200만 원	4300만 원	
	운현동 운현동부문자	61	20/4	1억1600만 원	1억1500만 원	
	동원동 푸르미아파트	24	12/2	5400만 원	37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58	18/12	1억7000만 원	1억19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32	16/4	9000만 원	63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32	15/13	1억6000만 원	1억50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32	15/1	1억6300만 원	91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24	13/7	5300만 원	3700만 원	
	운현동 푸르미아파트	24	10/5	6000만		